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61 호 현대불교
2008년 1월 9일(음력 12월 2일) 화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15

자기 주처를 믿고 세상을 한번 새롭게 걸어보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천당 지옥이 따로 있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짊어지 워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편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내놓고 남한테 보시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진짜 자비한 보시라면 길에 가다가도, 웅기쭈기 애들을 데리고 추운 데서 떨고 있거나 더운 데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거나, 쫓겨나서 집을 얻으려도 돈이 모자라서 못 얻고 오갈 데 없이 헤맬 때 그냥 아무거나라도, 하다못해 재를 지내 달라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주는 게, 그게 재를 잘 지내 주는 일이지요. 그게 진짜 보시지, 내가 한다는 게 없이 해야 보시지 내가 한다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하고 보시하는 건 보시가 하나도 안돼요. 자기한테 오다들 생애, 세세생생의 예금 통장이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같이 살고 더불어 돌이 아닌 까닭에, 나를 내가 도운 건데 나를 위해서 내가 한 건데 누구한테 잡혔다 못했다 하겠습니까? 가계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물건을 하나 샀으면, 얼마짜리든 돈을 주고 물건을 샀으면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단 얘깁니다.

이런 거와 같이 여러분은 정신계를 좀 더 추구해서, 나를 지금 이끌어 가는 놈이 누군가, 나를 공부하게 하는 놈이 누군가, 나를 군대에 입대하게 하는 놈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있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누가 갖다 넣은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 가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아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서 행복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 말아라 한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생겼으니까 하게 된 거죠. 그러니 그렇게 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냐는 얘깁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속에,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천차만별의 말 뜻 행,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랙홀이라는 그 큰 별성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이 지구가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행성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태양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부처님께서 "만 명이 깨달아도 일불이 아니라, 그 일불의 마음은 바로 내가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후성이 팽창이 되거나 타 버린다고나 이래도 내가 그것이 되는 까닭에 내가 나를 죽이는 법은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수명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이 한 가지를 비롯

해서 일체 만법을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억겁을 통해서 나온 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다 말할 하겠습니까 마는... 근본적인 나!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벌어졌다. 나로 인해서, 바로 참나로 인해서 곱데기인 내가 지금 기계처럼 움직여지고 있다. 그러니 움직여지는 것도 그 속에서 작용을 해서 움직여지게 하니까 '내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음이 발전되면... 옛날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쪽 군사는 천 명인데 이쪽에는 오백 명밖에 안 됐답니다. 그게 그것을 다 해결을 하기 위해 어떻게 생각을 했었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생명들의 의식을 모두 투입했습니다. 자기 군사를 오백 명한테 투입을 하고 또 그쪽에는 그 쪽대로 투입을 해서, 모두 자기 군사가 아닌 줄 알고 싸워서 오백 명을 다 해치우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물체가 오면 '아! 저기서 오는구나!' 이렇게 보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거는 누가 달미를 쳐도, 누가 모가지를 친다 하더라도 못 보니까 몰라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군사 오백 명을 가지고 천 명을 이겼는데, 죽인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싸움이 멎고 편안하게 잘 잤더라고요. 피리 하나를 가지고도 그렇게 했고,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를 군사로 만들어서 투입을 해 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럼 지금 발전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대로 천차만별의 그 마음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마음은 한 게 없어서 허공에 하나의 마음이 팽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니까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해도 모두 해 보지 않았으니까 아리송하고 모르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맛있는 자장면을 안 먹어 보고 얘기도 들어 보지 않았더라면 먹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먹어 보고 해 보고 했으니까 그게 하고 싶고 먹고 싶지,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하고 맛도 모르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 들었던 그런 아파

발전도 할 수 없고 먹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라는 겁니다. 평소시에 항상 '너만이, 너만이 할 수 있어.' 하면서, 바로 아까 컴퓨터 얘기 했죠? 구정물이 나올 때는 거기가 '구정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너 나가 구정물이 안 나오게, 맑은 물 나오게 하는 것도 너!' 하고 퇴입력을 한다면 구정물이 바로 맑은 물로 화해서 나오니까.

그런 것과 같이 팔자 운명은 없습니다. 모두 살기도 힘들데 여기 뭐가, 이사 가는데 손이 있어서 못 간다, 날짜를 봐야 한다 이러는데, 뭐가 있다고

서 안 해도 아니 되고 너무 차려 놔도 아니 되고 그냥 딱 하나만 찍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딱 하나 가지고 다 먹고도 그 찍이 되는데 말입니다.

이 도리를 알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모두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급하면 급하면 그냥 (기운을 쫓아 보시며) 여기다가... 조상도 전부 한 줄에 꿰어 있어요. 풍 풍자라면, 풍자라면 풍자대로 놓여 있고 팔자라면 팔자대로 모여 있지 풍자하고 팔자하고 섞어 놓는 법 봤어요? 과일도 전부 끼리끼리 모아 놓으면서도, 그것도 큰 것과 작은 걸 골라서 또 놔요. 인간 자체 살아나가는 것도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모이고, 기사님들은 기사님대로 자동적으로 모이고, 군인은 군인대로 자동적으로 모입니다. 아, 한번 보세요, 안 그런가. 제가끔 다 저절로 자동적으로 모여서 살죠? 그리고 더불어 도와 가면서 살죠?

만약에 옷 찌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옷을 지금 어떻게 입고 있으며, 농사짓는 사람이 없다면 농사지는 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먹고 지내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농사짓는 데에 가면 농사꾼이 높고, 배타는 데 가면 뱃사공이 높고, 옷 찌는 공장에 가면 옷 찌는 공장 주인이 높고, 모두가 제 각기 높으니까. 그래서 평등하니까." 하고요. 요새 내가요, 치아가 빠져서 치과에 가니까 치과 의사, 원장님이 제일 높습니다. 거기 가니까 내가 아주 밑에, 딱 그냥 밑으로 가 버려야 하죠. 하하하...

그러니 이 만물만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가는 어버이만한 소 또는 말, 사람 등 어느 차원의 도량이든지 다, 그 도량에 가면 내가 그게 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애야, 소를 건지기 위해서는 내가 소 속에 들어가서 내가 소가 돼야 하느니라. 그렇지 않다면 소가 저항력을 느껴서 한마음이 되지 않느니라. 내가 소

가 돼야 소도 나에게 저항력을 느끼지 않아서 한마음이 되니까 건질 수 있는 건데, 안 그러냐?"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소편이 아닙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우주 또는 별성, 태양, 어느 후성이라 할지라도 어느 거 하나 아니 되는 게 없이 되는 거죠. 저항력을 느끼지 않게끔 하나가 돼야 건지죠.

사람 하나 건지는 데도 내가 그 사람이 돼 줘야 건지지는 거지 내가 잘났다고 그 사람을 끌고 애를 쓰면 절대로 그런 이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모두 한마음이 되는 거지 내가 죽지 않는다면 한마음이 어떻게 되며, 내가 베를 짜는 데 어떻게 상태에서 베를 짜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여러분도 다 그렇고, 또 각자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자욱에 갈 뻔 지옥고에 있는 거고 또는 중세계에 갈 때는 중세계에 있는 거고 상세계에 갈 뻔 상세계에 주어지는 거니라. 그러니 어느 것이 내가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저절로 자동적으로 모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온 자리도 없기 때문에 갈 자리도 없느니라." 하고요. 보세요!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모습만 갈아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습과 차원이 주어지지요. 주어지는 모습과 차원은 자기가 한 대로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중세계다. 하천세계로 떨어지거나 상세계로 올라가는 중세계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니까 공부를 해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너 먼저 알아라.' 이런 거죠.

그러니 소년 소녀 가장 돌기라고 하지만 그 내 자식들입니다. '예전에 내 자식이었을 때 그렇게 불행했고, 예전에 나왔을 때 그렇게 불행했고, 그리고 그 아픔을 어찌 다 말로 하라!' 하고 그것을 내 아픔처럼 생각해야 되고, 물질적인 보기도 해야겠지만 정신적인 보시가 또 있습니다. 정신적인 보시는 돌 아누게 같이 있는 공덕을 쌓은... 그 쌓은 것도 없는 것이 공덕이요, 공덕을 쌓은 그거를 한마음으로 같이 한다면 차차차 그 애들이 잘되고, 마음이 이리저리 가서 나를 거를 저리저리 가게 만들고,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 게 마음 보시입니다. 그래서 하는 사이 없이 하는 것이 마음의 진짜 자비한 보시인 것입니다. 그런

16면으로 계속

출강 및 통신

2008학년도 제17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7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8학년도 제17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수여됩니다.
-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법사과정	•대법사과정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출강반	•통신반	
입학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심이 돈독한 분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교육수로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가수행) 		
교육장소	•서울 본 대학 •부산 교육원 •제주 교육원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8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사무국(우편·팩스 접수가능) 부산교육원(☎051-466-1959) · 제주교육원(064-751-1959)

한국 불교 법사 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사찰, 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 (550곡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디지털마이크



각종 마이크 시스템(예코가능)



무선마이크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가능까지. (아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합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기동 기열 107호 代表 최우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원물보장